이기는 삶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이라고 인사를 나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하고 먼저 인사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나를 죽이는 수행법이다.

그런데 개중에는 상대가 자신을 내몸처럼 여기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유치함을 극복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추자.

승리제단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여겨라' 라는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곳이다. 나는 낮고 낮은 종의 종이요 상대방은 높고 높은 상전이요 하나님인 것이다. 그래서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미워하더라도 맞상대하여 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다. "나는 괴수 죄인이니 나를 미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미워해 주세요." 라고 하며 나를 미워하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유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를 개똥으로 여겨라' 라는 말이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이다. 그렇다고 내가 개똥이니 상대방도 개똥으로 여기라는 말은 아니다.

얼마 전 어떤 분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다. "다리가 아파서 저녁에 예배를 보았는데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책임자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며 자신이 "다리가 아파서 로비에서 예배를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였다. 그래서 "로비에서 예배를 본다고 하고서는 하루만 로비에서 예배를 보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보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더니 로비에서 예배를 보니 눈치가 보이고 예배실로 들어가자니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아무도 없는 맨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혼자 예배를 보지 말고 올라가서 예배를 보라."고 하여 쫓겨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리가 불편하면 오전 9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로비에서 예배를 보든지 아니면 예배실 앞자리의 의자에 앉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9시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출석체크도 되어 있지 않고,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데 어떻게 출석체크를 해 줄 수가 있느냐?"고 하였더니 "저녁 7시 예배를 보았다. 다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리가 아픈 줄 알면서 그런 편의도 못 봐 주느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면서 말로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고 하고는 실제로는 아픈 사람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인사 안합니다."라고 항변하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이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모두 출석카드가 있는데 자기 출석카드로 체크를 하면 되고 카드를 안 가지고 왔을 때는 이름을 적어두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맡겨서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러니 대신 출석체크를 해 달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를 어디다가 갖다 붙이는 것인가?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픈데 왜 당신은 나의 아픈 사정을 당신의 사정처럼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이 있다. 참으로 인간이란 자기 합리화에 도가 텄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남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할 때 "나는 마귀새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하고 고소하게 생각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자유율법이거늘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이치가 맞아야 한다. 각자가 내 입장만 생각하고 억지 주장을 하며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해 버리면 전체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 규율이 있으면 지켜야 질서가 바로 선다. 각자 자기 사정, 자기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주님말씀대로 그것은 댁의 사정이다. 남의 사정 모른다고 항변하지만 주님께 자유율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나를 짓이기고 미워해야 나라는 마귀가 죽는데, 나를 미워하기는커녕 반대로 자신을 극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승리제단 식구 중에는 아직도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이라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자유율법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또한 위의 경우처럼 자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은 그런 인사법을 만들어서 강요하느냐? 그것이 인간의 말이지 주님의 말씀이냐?"라는 교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자유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형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책임자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자유율법 실천운동에 묵묵히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승리제단 식구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내 몸처럼' 하고 먼저 인사하자.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꺾는 방법이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마냥 때를 쓰고 우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성숙된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승리제단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속담 속의 영생학

은혜를 원수로 갚다

일설에 의하면 아무리 유명한 부흥강사로 나선 은혜자라도 대부분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한다. 단(壇)에 선다는 것은 죄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승리자 이외에는 그 누구도 단상에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한다.

음란죄 짓는 목회자를 구원하는 설교

한때 교인 수가 십만 명으로 자랑하던 대형교회의 목사들 중에 몇몇이 여성 신도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자, 네티즌에 의해서 불륜천국이라는 냉소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평범한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명망이 높은 목사가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법도 하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영의 사정을 아는 자는 음란을 이기지 못하는 목사의 사정(事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부흥집회나 교회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이 지은 죄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옮겨져 음란한 마음을 일으킨다.

특히 병든 교인에게 안수를 하며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대형교회의 목회자는 심각할 정도로 오염을 받게 되는 고로 죄를 짓게 되더라도 남모르게 은밀하고 무서운 음란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음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런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고 건져낼 목적으로, 하늘의 사람이 음란에 불타는 목회자에게 찬물을 끼얹은 적이 있다. 그리하여 음란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목회자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온 목회자는 음란죄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구원해낸 하늘의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자신의 폐부를 건드리고 드러냈다는 수치심에 사로잡혀 하늘의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눈이 가려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거룩하고 성결한 구세주를 인간 죄인과 똑같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신의 몸까지도 검증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혜가 모자라서 죄인들의 불경스런 만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일까요?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의 사생활을 밝힐 것이다. 이 사람이 영육 간에 고자라는 것을(1990.9.15 말씀 중에서)."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 심판날에 그의 거룩을 입증하실 것이다' 라는 이사야 5장 16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루기

의미가 모호한 문장

우리가 쓰는 글들 중에는 의미가 모호한 문장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자.

1. 수식의 모호성

예1) 그 거만한 시장의 외삼촌은 그 시장이 쌓아놓은 공덕을 죄다 깍아 내리고 있었다.

~ 거만한 게 시장인지, 외삼촌인지 모호한 문장이다.

예2) 사람들이 많은 도시를 다녀 보면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 사람들이 많은 도시인지, 많은 도시를 다닌다는 말인지 모호한 문장이다.

2. 비교 구문의 모호성

예1) 부모는 자식보다 이웃을 더 사랑한다.

~ 부모가, 자식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지, 부모가 자식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예2) 영희는 순이보다 책 읽기를 더 좋아한다.

~ 영희와 순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순이보다 영희가 더 좋아한다는 의미인지, 영희는 순이도 좋아하고 책 읽기도 좋아하는데 책읽기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인지 분명치 않은 문장이다.

3. 병렬 구문의 모호성

예) 철수는 영희와 순애를 만나러 갔다.

~ 철수가 두 사람을 만나러 갔는지 아니면, 철수가 영희와 함께 순애를 만나러 갔는지 모호하다.

4. 의존 명사 구문의 모호성

예) 철수가 술 마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 철수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철수는 술 마실 줄 모른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

5. 부정 구문의 모호성

예) 그는 그날 덕수궁에 가지 않았다.

~ '그, 그날, 덕수궁, 가다' 중에서 무엇을 부정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승우 기자

누구나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진정한 종교 –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는 것 !

The true religion - to realize that Conscience is the mind of God.

▶ 종교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 인간의 육신은 무엇이며, 우리가 사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인간이 진정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가 인간 자체를 모른다면 종교를 논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가 됩니다.

Religion exists in man's mind. Many philosophers have wondered about what the mind is, what the body is, the reason why we live and where we shall go after death. But no one has got the correct answer. Nobody knows who man really is. Actually, It is nonsense to talk about religion, if one does not know man himself.

▶ 종교의 목적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타난 후에는 우리는 진정한 종교를 찾을 수가 있는 것 입니다. 오직 교회를 짓는 것만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는 죽음의 마음이 아니라 영생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The end of religion is to realize the truth. After the truth appears, we can find true religion. Only building a church cannot make a religion. The true religion is the mind of immortality, not the mind of death. True religion should be able to achieve the Kingdom of God.

▶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생명의 신은 바로 양심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양심은 진정 생명의 기를 주는 영입니다.

It is thanks to the spirit of life, God, that we are alive now. The spirit of life is Conscience. Everyone that is alive has Conscience. This Conscience is really the life-giving spirit.

▶그래서 양심이 존재하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영이 완전히 마귀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육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죽여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피를 썩힘으로써 마귀인 나라는 의식은 무수한 하나님의 영을 죽여왔습니다.

So, where there is Conscience, there can exist life. But the moment the spirit of life is killed totally by Satan, the human being dies. Thus, Satan has been killing God so many times for six thousand years. By decaying human blood, Satan, Self-Awareness has injured the life of God innumerable times.

▶ 결국 진정한 종교는 인간의 실체를 알고 양심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Eventually, The true religion is to know man himself and realize that Conscience is the mind of God.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자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자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간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제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